

국산 스마트카드 콜롬비아 커피농장 진출

국산 스마트카드 솔루션이 콜롬비아 커피 농장을 파고든다.

스마트카드 솔루션·단말기 전문업체 사이버넷(대표 이종후 <http://www.cybernet.co.kr>)은 콜롬비아 은행인 메가뱅크와 약 25억원 규모의 EMV(IC카드 국제표준) 카드발급 시스템 구축 계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.

이번 계약으로 사이버넷은 메가뱅크가 콜롬비아 커피협회와 함께 커피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EMV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.

특히 이 프로젝트에는 카드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시스템통합(SI)을 맡게 되는 사이버넷은 물론이고 삼성에스원이 약 40만장의 카드를, 동양텔레콤이 1500여대(1차분)의 카드 단말기를 공급하는 등 국내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.

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메가뱅크는 우선 올 하반기까지 약 500여 자치도시의 40만 커피 공급업자에게 EMV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.

그 동안 협회에 커피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받았던 커피 공급업자들은 IC칩이 내장된 EMV 카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콜롬비아 반군 등의 현금 강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이버넷 측은 기대했다